

LGD, 중국 LCD패널 합작공장 착공

중국과 합작 광저우에 8세대 공장 건설 ... 중국수요 급증추세 대응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Guangzhou)에 8세대 LCD(Liquid Crystal Display) 패널 공장을 착공하고 세계 최대의 LCD TV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5월22일 중국 광둥(Guangdong)의 광저우 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 8세대(2200mmx2500mm) LCD 패널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69만5000㎡(약 21만평) 부지에 건설하며 LGD와 광저우개발구, 중국 최대의 TV세트 생산기업 중 하나인 스카이위스가 70대20대10 비율로 투자했다.



201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상범 대표는 기공식에서 “중국공장은 생산 현지화를 통해 적기에 공급하고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D는 LCD 부품 협력기업들과 현지에 동반진출해 중국 최대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해나갈 방침이다.

투자 방법과 일정은 디스플레이 시장 및 수요, 전반적인 투자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6월 말 결정할 예정이다.

LGD는 이미 중국 난징과 광저우, 폴란드 브로츠와프, 멕시코 레이노사에 모듈 공장을 건설하는 등 생산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광저우 공장과 2008년부터 가동한 광저우 모듈공장을 통해 LCD패널 제조단계부터 조립단계까지 현지 생산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2011년 중국의 LCD TV 판매대수가 4452만대로 북미와 서유럽을 앞지르며 LCD TV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고, 2014년에는 약 57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22>